

그리스도 발 아래

Under Christ's Feet

고린도후서 10: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2월 10일 설교 (설날)

⁵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설날은 문화

오늘 설날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음력을 오래 써온 나라에서는 거의 이천 년이 넘도록 오늘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백이십 년 전 서양 문물을 도입하면서 양력 일월 일일을 또 새해 첫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우리는 새해 첫 날이 두 겹입니다. 양력은 일월 일일을 신정으로 지키고 음력은 정월 초하룻날을 옛 이름 그대로 설날로 부르며 지킵니다. 두 번 노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새해 인사를 두 번이나 하려니 어색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절이 돼도 전화밖에 못 드리는데 한 번으로 끝날 불효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안 좋지요.

양력을 처음 지키게 된 건 갑오경장 때입니다. 서양 문물을 대거 도입해 제도를 뜯어고치면서 양력을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오경장이 주로 일본의 영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니 일제 때는 양력을 지키면 친일이고 음력을 지키면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나라가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양력을 주로 썼습니다. 설이라는 말 대신 신정이라 했지요. 음력설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구정이라는 이름으로 괘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정이 설날이라는 옛 이름도 되찾고 또 공휴일까지 되어 적어도 새해 첫 날 부분에서는 양력 음력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정월초하룻날이 설날로 회복된 걸 두고 민족문화의 승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양력을 지키는 서양 문화에 내내 눌러 살았는데 정월초하루가 설날이 되면서 좀 살아났다 그런 말이지요. 설날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례지내기, 어른들에게 세배 올리기, 복조리 사고팔기, 거기다 식구들이 모이면 화투놀이, 윷놀이 같은 것도 합니다. 음식도 가지가지 많이 먹고 옷은 설빔을 입고 만나면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구정으로 지킬 때는 이런 게 다 어정쩡하더니 설날이 살아나면서 이런 문화도 상당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설날은 우리 것이고 양력설은 서양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날은 천 년도 넘었고 양력설은 백 년 조금 넘었습니다. 십분의 일도 안 되지요. 오래 된 건 다 우리 것입니까?

오래 된 것들도 시작을 따지면 순수 우리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음력 자체도 중국에서 온 것 아닙니까? 설날이면 지내는 차례도 유교문화니까 중국 것이고, 오래 된 종교인 불교나 유교도 다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것이라 안 하는 이유는 오래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 비하면서양 문화는 꽤 늦게 들어왔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양력설도 백 년이 넘었으니 우리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렵습니다. 양복도 마찬가지지요. 처음 들어왔을 때야 당연히 낯선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오래 된 것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상당히 자리를 잡아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뭘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활동이 다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고, 즐기고 하는 게 다 문화입니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이렇게 문화라고 직접 불리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다 문화인 셈입니다. 음식, 옷, 집 이런 걸 비롯해서 사람의 말, 행동, 몸짓, 도덕, 종교, 관습, 스포츠, 오락, 이런 것들도 문화고, 이런 예배의식도 문화고 설교도 찬송도 기도도 다 문화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다 문화니까 사람은 말하자면 다 문화인입니다. 우리가 야만인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 야만인 그게 그 사람들 보기에 저 나름의 문화인 셈이지요.

문화는 다양합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저 나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다릅니다. 좋고 안 좋고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긴 있지요. 뭘니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제 것이 좋은 법입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 백 수십 개 나라 사람이 다 모여 살고 있는데 누굴 붙잡고 물어 봐도 제 민족, 제 문화가 자랑스럽다 합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내가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나하고 아예 뒤섞여 있습니

다. 저는 양력을 주로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설날은 아직 좀 어색합니다. 또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설날문화 가운데 차례 지내기, 복조리 돌리기, 화투치기, 제사 음식 만들기, 이런 것하고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은 민족 명절이라 부르는 설을 맞아 이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복습입니다.

문화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세 가지는 동물에게 주신 명령하고 똑같습니다만, 사람에게는 거기다가 땅을 정복하고 다른 생물을 다스리라는 두 가지 책임을 더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다 땅을 정복하고 다른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합쳐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이라 부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 땅을 우리 아래 두신 겁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 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베어낸 나무로 약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풀밭을 갈아 곡식을 재배할 수도 있고 그 풀을 거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밑에 두셨다고 해서 마구 짓밟고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들어 환경파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지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릴 뿐 아니라 지킬 책임까지 함께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도 다스리되 지키면서, 다시 말해 보존하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2:15).

이 문화명령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하나님의 형상 인간으로 하는 모든 문화활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요,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애초에 두신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여 만들어내고 고치고 다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하고 그저 만들고 그저 즐기면 하나님 뜻에 꼭 맞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모든 걸 망쳐 놓았습니다. 죄가 사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움직이고 즐기면 하나님을 어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이 이제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만두면 황무지가 됩니다. 굶어죽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시를 읊었습니다. “야, 빼도 내 빼고, 살도 내 살이로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의 문화 행위 아니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 하신 하나님 뜻에 꼭 맞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기만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인데, 죄 때문에 의복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옷 벗고 입을 때마다 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옷을 벗어던지고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옷을 입게 되었는데 옷 벗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하긴 저희도 그렇게 답답하니까 옷이라도 벗어 던지는 거겠지요.

성경은 문화가 발전하는 곳에 죄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 초기의 문화는 가인의 후손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죄를 키워가면서 또 문화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 가인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문화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둘 얻은 최초의 가정파괴자였고 또 보복살인을 한 다음에는 하늘을 향해 큰소리까지 쳤습니다. 죄가 많이 자란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자라는 동안 문화도 자랐습니다. 라멕의 자식들 가운데 야발은 목축업을 시작하고 유발은 음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을 통해 쇠를 다루는 철기문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노아 집안 여덟 식구만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 뭘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는 취하여 나체소를 벌였습니다.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건 분명한 문화행위입니다. 홍수 전에도 포도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다 쓸러가고 난 다음에도 죄는 쓸러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문화는 죄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키우는 문화

우리는 문화에서 죄의 힘을 느낍니다. 문화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많이 듣던 구절이지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청마 유치환이 쓴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가 사실은 아내에게 바친 시가 아니라 불륜 관계에 있던 다른 여자에게 바친 시입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잠언 말씀처럼 간음죄의 짜릿함이 이런 멋진 시를 낳은 셈입니다 (잠언 9:17). 바람둥이로 유명한 영국의 시인 바이런도 성욕과 간음죄를 동력 삼아 멋진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 있더라 (I woke up one day and found myself famous).”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는 소리지만 잘 들어보면 시만 쓴 게 아니라 잠도 많이 잤다는 소리 같습니다. 로댕도 부인 외에 까미유 끌로델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화가 피카소는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화풍의 변화를 설명할 때 그 무렵의 여자 이름을 제목으로 삼을 정도입니다.

큰 전쟁을 겪으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죽일까 연구하다 보니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온갖 분야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평화로울 때도 돈을 더 벌려는 욕심이 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명예욕이 음악이나 체육 같은 분야에서 거장을 탄생시키고 신기록도 만들어냅니다.

문화를 만드는 동력도 죄악이지만 문화를 즐기는 데도 죄의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다 문화인이 하는 거니까요.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 진리를 아름답게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거짓을 퍼뜨리고 음란을 즐기는 데 그런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거짓된 것이나 음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주제가 거의 불륜이라 합니다. 작가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그런 건전한 가정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 불륜이 많아지고 생각도 못한 기발한 불륜까지 나옵니다. 외국의 어느 영화감독한테 왜 영화에서 불륜만 다루느냐 하고 누가 물었더니 불륜 말고 재미있는 게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 하더랍니다.

적극적인 태도

문화가 이렇게 죄와 더불어 자랐고 또 지금도 죄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아예 문화 자체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메노나이트 종파, 특히 아미쉬 (Amish)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동차도 안 타고 전화도 안 씁니다. 청교도 같은 보수 기독교인 가운데도 영화나 연극은 아예 안 보고 춤이나 당구 같은 오락을 거부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죄를 조심하는 그 마음은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안 된다 하면서 마차는 왜 타는지, 또 그렇게 많은 영역을 배제하고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의문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문화는 본디 그런 거야 하면서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진영이 그렇습니다. 문화 자체는 나쁜 것이 없으니 이용만 잘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말이야 쉽지요. 이 사람들은 죄가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요즘 여자 가수들 보니까 다 속옷만 입고 나옵니다. 수퍼보울 때 비온체도 위에만 입은 것 같더군요. 저는 민망해서 잘 못 보겠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라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봅니다. 죄가 섞였다고 무조건 고개를 돌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가 뻔히 보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괜찮다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일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쳤던 리처드 니버 (H. Richard Niebuhr)라는 신학자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 말고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잘못된 것은 고치는, 그러니까 문화를 변혁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Christ as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에 스며있는 죄의 요소를 분석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꿈으로써 문화를 하나님이 본디 의도하신 모습으로 변혁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문화를 연구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문화를 변혁시킬 뿐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문화에서 배워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뒤덮인 문화에 물들자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죄가 주도하는 문화지만 문화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Richard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 9. From David Naugle, "Christianity and Popular Culture")

값진 가치관을 담은 좋은 시나 소설, 또는 좋은 영화나 연극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회에 간다든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본다든지 하면서 좋은 문화를 즐기는 것 또한 문화 명령을 순종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 삶이 다 문화이기 때문에 두루 잘 알지 않고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림도 많이 보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때 더욱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자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중립입니다. 죄의 힘으로 발전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시간에 쓰는 이 음향기기, 여러 가지 악기, 텔레비전, 컴퓨터, 이게 다 문화의 일부인데 녀석들이 복도 많지요 이 교회로 팔려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음향기구나 악기 가운데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로 팔려가서 사람들 죄 짓는데 쓰이는 것도 있고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것도 누구 비밀을 캐다든지 거짓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나쁜 일에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 후손을 통해 발전한 문화 가운데 기계문명도 있는데 그 기계문명을 가장 멋지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노아지요.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면 아마 기계나 장비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두발가인 집 장사 많이 시켜 주었겠지요. 또 방주에서 짐승들을 한 해도 넘게 돌보자면 야발이 개발한 목축기술도 많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유발이 시작한 음악도 홍수 이후까지 이어진 걸 보면 어찌면 노아의 며느리 가운데 누가 유발 집안 사람한테 수금 레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 나라 시민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에만 속했다면 참 쉽겠지요. 땅에만 속했다면 무슨 문화든 입맛대로 즐기면 될 것이고, 하늘에만 속했다면 세상 다 버리고 독야청청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이 땅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 다스리면서 보존할 책임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긴장이 늘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과 뒤엉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문화를 만들든, 남이 만든 문화를 즐기든,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발 아래

우리는 다 드린 사람입니다. 돈도 시간도 몸도 다 드리고 우리 마음까지 주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문화생활, 곧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것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문화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문화를 팍 쥐고 있는데다 우리 역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함으로써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즐길 수도 있고 반대로 문화를 변혁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로는 문화에 스며 있는 죄를 드러내 제거하고 문화를 다시금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책임, 곧 피조물을 다스리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니 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정복하는 대신 거꾸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문화 명령을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는 이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잡고 죄에 찌들려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을 오늘도 계속합니다 (고린도후서 10:5).

문화 창조의 사명

다시 물어봅시다. 신정이 좋습니까, 설날이 좋습니까? 둘 다 좋기도 하고 둘 다 안 좋기도 합니다. 새해 첫 날 서로 모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신정이든 설날이든 다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이를테면 제사를 통해 조상을 마치 신처럼 섬긴다든지, 명절 때마다 힘든 일은 여자 다 시키고 남자들은 학투놀이나 한다든지, 복조리 같은 걸 사고팔면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은 양력에 하든 음력에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만들 것입니다. 전통문화든 최근에 들어온 문화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문화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게 자녀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선택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요.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의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꿀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우리의 의식주생활, 우리가 보고 즐기는 영화, 연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문화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주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지 잘 살펴 우리 모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문화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권수경 목사)